

『孔夫子聖蹟圖』의 책판과 판본 연구*

A Study on Woodblocks and Oldbooks of *Holly Traces of Confucius's Life*

박 광 헌 (Park, Gwang-Hu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孔夫子聖蹟圖』 판본 |
| 2. 화성 궤리사의 연혁 | 5. 맺음말 |
| 3. 화성 궤리사 소장 『孔夫子聖蹟圖』
책판의 특징 | <참고문헌> |

<초 록>

오산시에 소재한 화성 궤리사에 소장된 『孔夫子聖蹟圖』의 책판에 대한 실물 조사를 통해 책판의 현황을 소개하고 관련 판본을 조사하였다. 화성 궤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은 국내에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공부자성적도』의 판본이자 유일하게 현존하는 책판으로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책판은 1904년에 간행되었으며, 이듬해인 1905년에 교정되었다. 궤리사판 『공부자성적도』의 인본은 현재 다수의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중 장서각 소장본은 채색본으로 차별성을 가진다. 궤리사판 이외에도 車圭範이 간행한 『공부자성적도』가 있다. 제목은 동일하지 않으나 공자의 일대기를 판화로 수록한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은 『공부자성적도』에 ‘오륜행실’과 관련된 인명, ‘源文學錄’, ‘儒學士林錄’ 등을 추가한 서적이다.

要語: 화성 궤리사, 공부자성적도, 책판, 목판, 고판화, 유교판화, 공자, 오산시

<ABSTRACT>

The woodblocks of *Holly Pictures of Confucius' Life Story* (*Gongbooja-seungjeukdo*) were examined in Gwollisa Shrine in Hwaseong, Osan. The status of the woodblocks were introduced and the relevant editions were studied. The woodblock-printed edition of Gwollisa Shrine's *Holly Pictures of Confucius' Life Story* is the fastest edition in Korea. The woodblocks were made in 1904 and were corrected the following year in 1905. Printed books of Gwollisa Shrine's edition are held in several locations. Among them, the collection of Jangseogak is a color scheme that distinguishes it. In addition to the books published by Gwollisa Shrine, there is also the Cha Gyu-beom's editions. There is also a different title, but *Gongbooja-soksoo-Ohrunhangsil* is a book that adds names of good 'Oriental Attitude' person to *Holly Pictures of Confucius' Life Story*.

Key words: Gwollisa Shrine, *Holly Traces of Confucius's Life*, Woodblock, Woodprint, Old Engraving, Confucius, Osan City

* 본 연구는 2019년 4월 12일 오산시 화성 궤리사 성적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atssara@hanmail.net)

투고일: 2019년 5월 17일 최초심사일: 2019년 5월 27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7일
서지학연구, 제78집, 69-90,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8.69]

1. 머리말

“한국의 유교책판”은 세계적으로 중요성을 인정받아 2015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는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소장한 책판으로 305개 문중·서원 등으로부터 기탁 받은 718종 6만 4,226장의 책판을 말한다. 해인사 대장경판을 비롯한 불교 책판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유교책판에 대해서는 『韓國의 冊板目錄』,¹⁾ 『韓國冊板目錄總覽』²⁾ 등 전국에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목록 작업의 과정에서 조사되는 정도였다. 이후 한국국학진흥원을 통해서 “한국의 유교책판”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교책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유교책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여러 책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불교 책판·불교 판화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유교 책판 및 판화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華城 關里祠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은 공자의 생애를 판화로 표현한 것으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 62호³⁾로 지정되어 있다. 공자의 76대 손인 공재현 선생이 조병식 등과 힘을 합쳐, 중국의 산둥성에서 구해온 ‘성적도’를 저본으로 하여 1904년에 판각한 것이다. 『공부자성적도』에 관련한 국내 기록은 아주 드물며,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판본 또한 20세기 초에 간행된 일본밖에 남아 있지 않다. 『공부자성적도』 판본은 시대가 비교적 오래되지 않아 주목받지 못하였고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비록 시대가 20세기 초로 가깝기는 하나 화성 궐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의 책판은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어 가치가 크다.

본 논문에서는 화성 궐리사 소장 “성적도 책판”을 형태 서지학적으로 분석하고 궐리사 성적도와 함께 기타 성적도 판본을 정리하고자 한다.

2. 화성 궐리사의 연혁

화성 궐리사는 경기도 오산시 매홀로 3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산시 궐리사’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기념물 제 147호로 지정⁴⁾되어 있다. 오산시에 소재한 궐리사는 조선시대에는 화성 궐리사라는 명칭으로 통용되었으며, 논산에 있는 魯城 궐리사와 함께 양대 궐리사로 통했다.

화성 궐리사는 공자의 64세손인 공서린(孔瑞麟, 1483~1541) 선생이 처음 세웠으며, 정조 16년(1792)에 ‘關里祠’라는 어필 편액을 받았다.⁵⁾ 다음해인 1793년 5월에는 궐리사가 완공되었는데 진흥

1)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2) 鄭亨愚,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239. 화성 궐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관련 내용 수록.

3) 1976년 9월 26일에 지정됨.

4) 1994년 4월 20일에 지정됨.

청의 돈으로 비용을 갚게 하였으며⁶⁾ 6월에는 摛文院에 보관한 공자의 眞本을 화성의 궐리사로 옮겼다.⁷⁾ 정조는 명으로 지방관이나 관관이 初獻을 올리고 공시가 亞獻과 終獻을 드리도록 왕명으로 규정⁸⁾하기도 하는 등 궐리사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후원이 있었다. 철종 2년(1851)에는 궐리사의 공자 영정이 오래되어 강릉에 있는 영정으로 교체하여 봉안하기도 하였다.⁹⁾ 이후 고종 8년(1871)에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당시 훼손되었으며, 공자의 영정은 수원향교로 옮겨졌다. 고종 21년(1884)의 김태식 등의 상소를 시작으로 정최수, 김재정, 안봉량, 김병숙, 강영전, 박형동, 김기홍, 김순희 등의 궐리사 제사 회복에 대한 상소가 계속 이어졌다. 고종 37년(1900)에 신기선이 궐리사의 회복을 고종에게 촉구하여 운곡 서원에서 주자의 영정을 다시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 전례를 알아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궐리사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崔益鉉의 문집인 『면암집』에는 1902년에 수원 궐리사를 배알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당시에는 공자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1901년에는 공자의 76세손인 孔在憲 선생이 중국의 寧海府에 가서 孔昭謙이 소장하고 있던 呂星符가 새긴 『聖蹟本』 108쪽을 얻어 이를 다시 판각하여 지금의 화성 궐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를 제작하였다고 『孔夫子聖蹟圖』의 서문인 「聖蹟圖序」에서 밝히고 있다. 1974년 “공부자성적도 책판”이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 62호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궐리사 성적도”라는 명칭으로 지정되어 현재 문화재 안내판에도 이 명칭을 쓰고 있으나 ‘성적도’라고만 칭하면 印本을 뜻하는 것이므로 “궐리사 공부자성적도 책판” 또는 “궐리사 공부자성적도 목판” 정도로 하는 것이 명확하다.

3. 화성 궐리사 소장 『孔夫子聖蹟圖』 책판의 특징

3.1 책판의 개요

궐리사판 『孔夫子聖蹟圖』 책판은 1904년(광무 8)에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듬해인 1905년에 교정되어 재인출하였다. 전체 수량은 60판이며 수종은 피나무¹¹⁾로 전해진다.

5) 『정조실록』 정조 16년(1792) 10월 3일.

6)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5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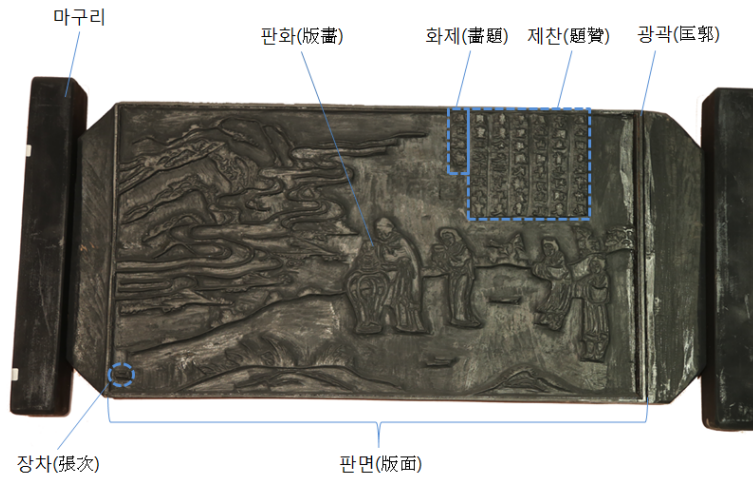
7)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6월 24일.

8) 『정조실록』 정조 17년(1793) 9월 2일.

9) 『철종실록』 철종 2년(1851) 9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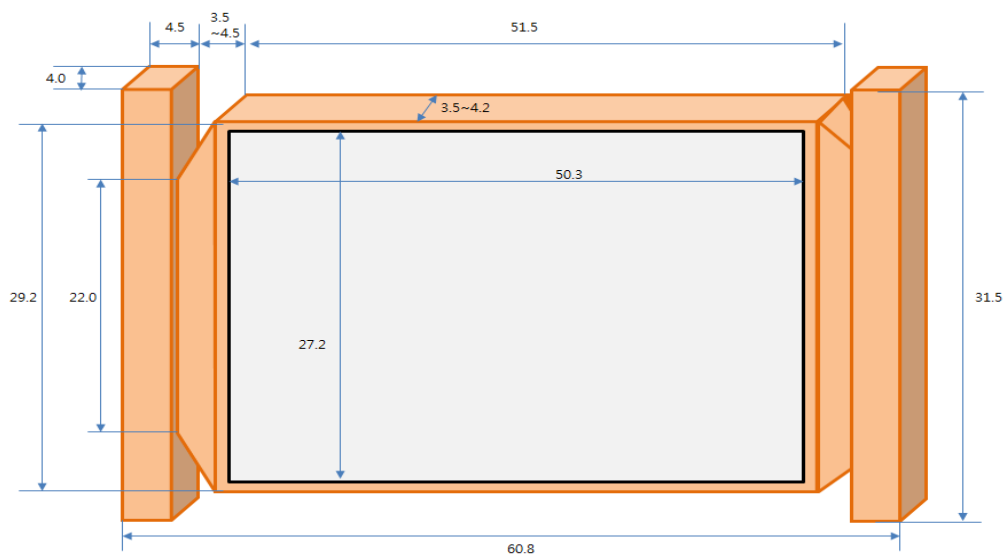
10) 『면암선생문집』 부록 제3권, 연보 중 임인년(1902) 선생 70세 9월에 수록되어 있음.

11) 문화재 설명판에는 피나무로 제작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근거는 확인된 바가 없다. 샘플 채취에 의한 수종 분석을 통해 정확한 책판의 재질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나무는 전국 해발 100-1400m에 자생하는 나무로 다식판, 소반, 바둑판 등의 판재로 사용된다.



<그림 1> 공부자성적도 책판의 부분명칭

판면은 판화가 全面圖로 수록되어 있으며 빈 공간에 畫題와 題贊을 수록하였다.
판화가 있는 1장을 기준으로 책판의 크기는 31.5×60.8cm이며, 판면의 크기는 27.2×50.3cm이다.



<그림 2> 공부자성적도 책판의 제원¹²⁾

12) 1장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3.2 판면의 순서

궐리사 성적도 책판의 구성은 『聖蹟圖序』(宋秉璿) 2장, 『聖蹟圖序』(趙秉式) 1장, 標題 1장, 『聖圖殿記』(張應登) 2장, 본문 판화 105장, 『통문』 5장(1904년), 『校正監印記』(1905년) 1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 117장 60판으로 되어 있다.

서문은 『聖蹟圖序』라는 동일한 제목으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1902년¹³⁾에 송병선(1836~1905)이 쓴 서문과 1904년에 조병식(1832~1907)이 쓴 서문이 있다. 標題는 판면 전체에 ‘聖蹟之圖’라고 篆書 大字로 되어 있다. 『聖圖殿記』는 1592년에 중국 산둥의 안찰사로 부임한 장응등이 石刻으로 聖蹟圖를 제작하고 이를 보호할 ‘聖圖殿’을 건립할 때 쓴 기록이다. 본문 판화는 총 105장이다. 제 1판화는 ‘先聖小像’으로 공자와 제자 顔回의 인물상이 수록되어 있으며, 공자의 생애판화는 제 2판화 ‘尼山致圖’부터 제 105판화 ‘眞宗祀魯’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판화 이외에는 궐리사 성적도를 간행할 당시인 1904년에 관련부서와 전국의 향교에 돌린 통문의 책판과 다음해인 1905년에 再印刊할 때 참여인원이 수록된 刊記 책판이 있다.

<표 1> 궐리사 성적도 판면 배치¹⁴⁾

(1·99), (2·95), (3·聖圖殿記2), (4·46), (5·20), (6·41), (7·34), (8·79), (9·65), (10·102), (11·?), (12·48), (13·47), (14·98), (15·66), (16·61), (17·27), (18·84), (19·?), (21·87), (22·72), (23·53), (24·71), (25·62), (26·52), (28·85), (29·39), (30·73), (31·45), (32·70), (33·58), (35·103), (36·69), (37·63), (38·80), (40·68), (42·77), (43·?), (44·92), (49·81), (50·89), (51·96), (54·105), (55·100), (56·60), (57·91), (59·78), (64·67), (74·101), (75·93), (76·97), (82·94), (83·86), (88·通文5), (90·通文3), (104·聖蹟之圖), (聖圖殿記1·X), (聖蹟圖序(송병선)1·通文2), (聖蹟圖序(송병선)2·通文1), (聖蹟圖序(조병식)·通文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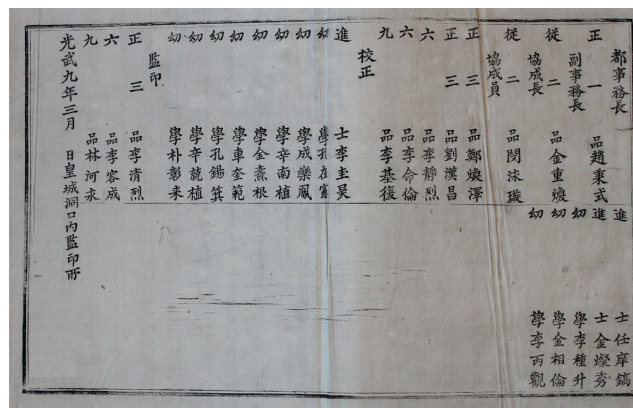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책판을 새길 때는 서문과 본문, 발문의 순서로 장차를 순서대로 새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간혹 판목이 얇아 뒷판을 새기기가 힘든 경우는 앞판만 새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순서는 유지한다. 하지만 궐리사 성적도 책판의 경우에는 새기는 순서가 일정한 규칙이 없이 판면을 배치하고 있다. 판면을 순서대로 배치하지 않으면 판각과 보관 시에도 번거로우며 인쇄하여 인본을 제작할 때에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장차를 미리 정리하고 판각할 때에도 순서대로 판각을 하는 것이 편리하다. 궐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의 판면이 이렇듯 무작위로 배치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힘들며 추후 새로운 관련 자료 발굴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13) ‘玄默攝提格’으로 갑자를 적었는데 이는 壬寅年에 해당한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나온 『孔子聖蹟圖』 도록에는 갑진년으로 오기하여 주의를 요한다.

14) (74·101)판의 경우는 마구리에 102로 잘못 기입되어 있다.

3.3 교정의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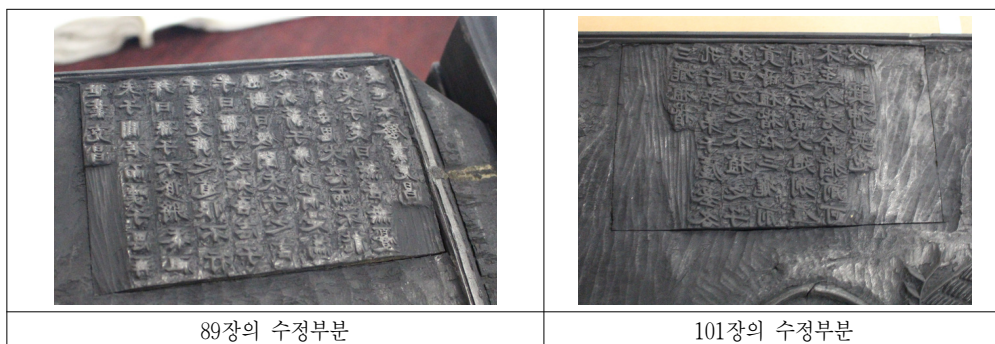
『공부자성적도』 1905년 刊記에는 校正에 참여한 9명과 인쇄에 참여한 3명의 직책과 성명이 수록되어 있다. 교정에는 進士 李圭昊, 幼學 孔在憲, 成樂鳳, 辛南式, 金燾根, 車奎範, 孔錫箕, 辛兢植, 朴彰來 등이 참여하였는데 이중 底本이 된 인본을 소장하고 있던 공재현 선생이 교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광무 9년(1905) 刊記

『공부자성적도』의 인본에는 확인되지 않으나 책판에서는 교정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책판에서는 주로 埋木을 통해 수정하였으며, 30장, 81장, 89장, 101장, 1904년 通文 刊記板 등에서 확인된다.

畫題와 題贊의 경우에는 일부 글자를 수정하지 않고 전체를 파내고 새로 판각하여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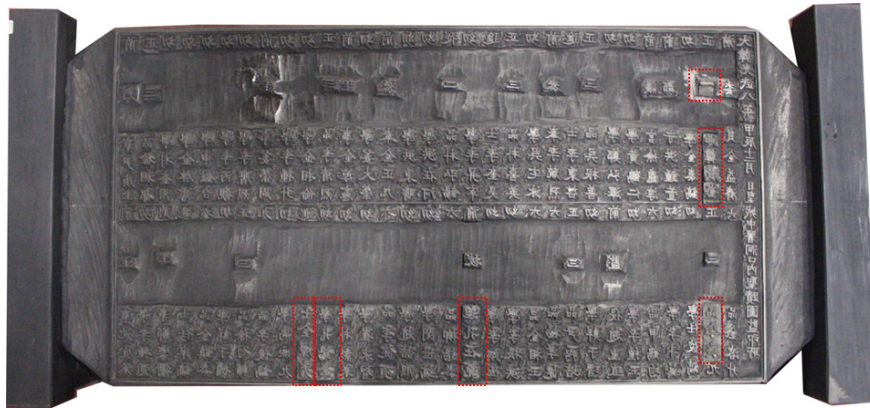


89장의 수정부분

101장의 수정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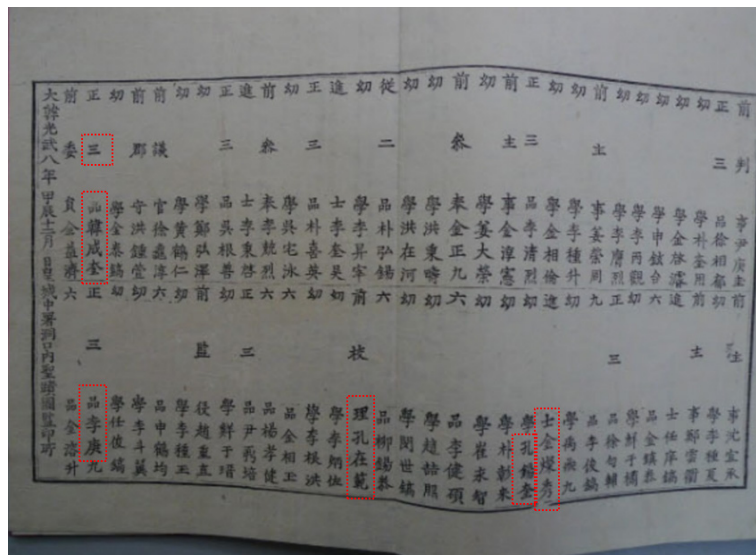
<그림 4> 공부자성적도 책판의 埋木 校正

1904년에 쓴 통문의 간기 부분의 책판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한 1글자 또는 이름자 등을 파내고 교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림 5> 공부자성적도 통문 간기 부분의 埋木 校正

1904년에 간행된 『공부자성적도』의 권말에는 통문 간기부분이 수록되어 있는데 성명의 부분에는 현재의 책판과 차이가 없어 당시 이미 교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正三品 韓成奎’라는 품계 표시가 판목에는 ‘一’으로 교정되어 있어 이것은 1905년 2차 교정 때 교정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림 6> 통문 간기부분의 교정부분(1904년 간행본)

3.4 미완성 판

궐리사 성적도 전체 본문 1~105장의 책판 중 104장과 105장의 책판은 도상이 완벽하지 않으며, 畫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미완성 판이다.



<그림 7> 궐리사 성적도 책판 104장

완전하게 내용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남아 있는 그림으로 내용을 파악하면 104장의 경우는 한 고조가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漢高祀魯』의 장면이며, 105장은 송 진종이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眞宗祀魯』의 장면이다. 104장의 경우는 제사를 지내는 인물은 나와 있으나 공자의 사당이 사라졌고, 105장의 경우는 사당은 표현되었고 인물이 사라졌다.

전체 판화 중 제 10판화 ‘命名榮貺’, 제 11판화 ‘學琴師襄’, 제 13판화 ‘大夫師事’, 제 38판화 ‘四子侍坐’, 제 41판화 ‘化行中都’, 제 46판화 ‘禮壞三都’, 제 47판화 ‘誅少正卯’, 제 60판화 ‘醜次同車’ 등은 畫題가 없이 題贊만 남아 있으며, 제 49판화 ‘侍席魯君’, 제 56판화 ‘儀封仰聖’, 제 82판화 ‘孔子延賢’, 제 90판화 ‘望吳門馬’ 등은 畫題와 題贊 모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제 73판화 ‘紫文金簡’의 경우에는 畫題가 없으며 題贊은 일부만 남아 있다.



<그림 8> 제 73판화 ‘자문금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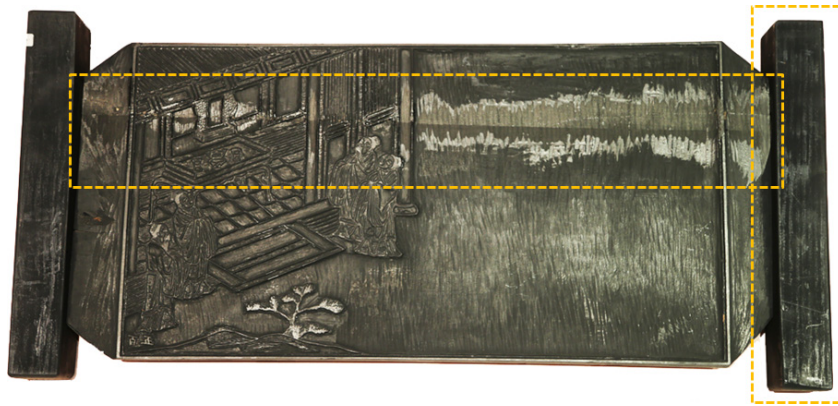
제 73판화는 후대에 글자부분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판각된 것으로 저본의 훼손된 형태를 그대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미완성 판들은 책판상의 내용이 완성되었다가 훼손되거나 제거된 흔적이 없다. 따라서 원래부터 저본이 된 성적도의 원본이 완전하지 않았으며, 이를 그대로 판각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3.5 책판의 수리와 마구리 교체

컬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 중 다수는 가로 형태로 길게 파손되었다가 접합된 흔적이 있다. 하지만 파손 흔적은 책판이 오래되어 생긴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곧은 직선으로 되어 있어 인위적인 절단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파손과정에서 마구리 역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현재 존재하는 마구리는 모두 새롭게 교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마구리는 다수의 판면 인쇄과정에서 먹이 옮겨 묻어 그 색이 점점 검게 변하게 되는데 반해, 컬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은 제작 과정에서 일부러 먹을 검게 묻혀 놓았다. 새로운 목재로 마구리를 교체하면 판면과 이질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구리에 먹칠을 해놓았기 때문에 책판을 옮길 때 손에 먹이 묻어 작업이 용이하지 않으며, 보관대 등에 먹이 옮겨 묻어 오염되기 때문에 보관과 활용에 용이하지 않다.



<그림 9> 컬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의 수리 판면과 교체 마구리(판화 105장)

4. 『孔夫子聖蹟圖』 판본

『孔夫子聖蹟圖』는 ‘聖蹟圖’, ‘孔子聖蹟圖’, ‘聖蹟之圖’, ‘聖蹟圖本’, ‘聖蹟全圖’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기 때문에 동일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또한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과 같이 「성적도」로 끝나지 않고 여러 내용들을 下卷 형식으로 추가한 인본도 있다.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의 경우 원래는 「성적도」에 下卷 형식으로 여러 내용이 추가한 인본으로 제작되었으나, 공자의 일대기 삽화인 「성적도」 없이 五倫을 잘 실천한 인물의 명단만을 수록한 경우도 있다. 이 또한 판본에 따라 내용이 상이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공부자’ 책판이 언급되어 있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은 『通文館志』 권8의 ‘什物’條에서 언급된 ‘孔夫子板’이다. 『通文館志』 ‘什物’條에는 ‘孔夫子板 御史箴板 守成事監板 待漏院記板 伯顏波豆板’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어 小字雙行으로 “1690년에 몽학관(몽골어 역관)인 박동설, 박동염, 최덕만이 재산을 기부하여 판을 간행하고 보관하여 배우도록 갖추었다”¹⁵⁾고 기록되어 있다. 위에 언급된 『공부자』, 『어사잡』, 『수성사감』, 『대루원기』, 『백안파두』 등은 모두 蒙學의 寫字의 과거 시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당시 책판은 司譯院에 보관되어 있었다.

몽학, 왜학, 여진학(청학)은 寫字를 실시했다. 寫字는 글씨를 베껴 쓰는 것이다. 몽학 寫字는 『왕가한』 · 『수성사감』 · 『어사잡』 · 『고난가둔』 · 『황도대훈』 · 『노걸대』 · 『공부자』 · 『첩월진』 · 『토고안』 · 『백안파두』 · 『대루원기』 · 『정관정요』 · 『속판실』 · 『장기』 · 『하적후라』 · 『거리라』였다. 『속대전』에서 『노걸대』와 『첩해몽어』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되었다. 『대전회통』에서는 『몽어유해』가 추가되었다.¹⁶⁾

『通文館志』에 언급된 ‘공부자판’은 현존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아 어떤 내용이 수록되었는지 알기 힘들다. 하지만 공자의 일대기 판화가 수록된 『공부자성적도』일 가능성은 낮다. 이 책판은 몽골어의 필사를 연습하기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판화 위주의 『공부자성적도』와는 다른 몽골어 문장으로 되어있는 자료로 추측되며, 수록내용은 판단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공자의 일대기를 판화를 중심으로 수록한 ‘성적도’에 해당하는 인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孔夫子聖蹟圖』의 여러 판본과 파생되어 나온 『續修聖蹟圖後學錄』, 『孔夫子聖蹟圖續修後學明倫錄』,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儒林錄』 등의 인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4.1 율리사판 『孔夫子聖蹟圖』

『공부자성적도』 국내 현존 판본 가운데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화성 율리사에 소장하고 있는 책판으로 인출된 인본이다.

율리사판 『공부자성적도』 책판은 「聖蹟之圖」(標題),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圖序」, 「先

15) ‘康熙庚午今蒙學官朴東說朴東琰崔德萬捐財刊板藏于該學’

16)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2014. 3), 46-47.

聖小像』, 본문 판화, 『통문』(1904년), 『校正監印記』(1905년)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본에서는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궐리사판 『孔夫子聖蹟圖』 인본은 대부분 不分卷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대체로 1책에서는 1장부터 54장까지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고 2책에서는 55장부터 105장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궐리사판 『孔夫子聖蹟圖』의 현존본은 <표 2>와 같다.

<표 2> 화성 궐리사판 『孔夫子聖蹟圖』 주요 현존본¹⁷⁾

인출시기	소장처	수록내용	비고
1904년	개인소장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통문』(1904년)	2冊 折帖本
1905년	UC버클리대학교 아사미 문고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校正監印記』(1905년)	2冊 折帖本
	고관화박물관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校正監印記』(1905년)	2冊 折帖本
	성균관대학교 도서관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校正監印記』(1905년)	2冊 折帖本
	국립중앙도서관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2冊 折帖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2冊 折帖本 彩色本
후쇄본	전남대학교 도서관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1冊 畫宣紙
	개인소장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圖殿記』, 『聖蹟之圖』(標題), 『先聖小像』, 본문판화	1冊 線裝本
	화성 궐리사	聖蹟圖序』, 『聖蹟圖序』, 『聖蹟之圖』(標題), 『聖圖殿記』, 『先聖小像』, 본문판화, 『통문』(1904년), 校正監印記』(1905년)	1冊 線裝本

궐리사판 『공부자성적도』는 권말에 『통문』이 수록된 경우와 『校正監印記』가 수록된 경우 그리고 아무것도 수록하지 않고 본문판화로 끝나는 경우의 3가지 판본이 있다.

대부분의 인본은 권말에 『통문』(1904)은 없이 『校正監印記』(1905)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문』(절목세칙, 간행참여명단 포함)이 수록된 개인소장본이 있어 이는 1904년에 인쇄한 인본으로 추정된다. 다음해인 1905년에 인출된 인본의 경우는 『통문』은 제거되어 있으며, 『校正監印記』가 수록되어 있는 경우와 교정기록 없이 본문의 판화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다. 권말에 간기가 없는 경우, 서문을 쓴 연대인 1902년으로 간행연대를 잘못 파악한 목록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권말에 아무것도 수록하지 않은 인본의 경우는 인쇄상태 등으로 볼 때 1905년에 인출된 인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공부자성적도』의 권수에는 1902년 9월에 쓴 宋秉璿(1836~1905)¹⁸⁾의 서문과 1904년 9월에 쓴

17) 표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기타 대학도서관을 비롯한 개인 소장본이 다수 남아 있다.

趙秉式(1823~1907)¹⁹⁾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조병식은 1904년과 1905년에는 각각 『공부자성적도』 간행의 都約長과 都事務長을 맡아서 총책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책판과 인본에는 송병선과 조병식의 서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李南珪(1855~1907)²⁰⁾의 문집인 『修堂集』 권5에는 ‘聖蹟圖序’가 남아 있으며 서문을 쓴 시기는 적혀있지 않다. 현재 이남규의 서문은 책판과 인본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남규 또한 『공부자성적도』의 서문 집필을 부탁 받았으나 서문이 채택되지 않아 판각되지는 않았거나 판각은 되었으나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남규는 명성왕후 시해(1895년)에 대한 부당함을 상소하였고, 그해 11월 乙未改革으로 단발령이 시행되자 이에 반대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였다. 『공부자성적도』의 간행 당시 총책임의 역할을 맡은 친일성향의 조병식은 이남규를 반일적인 인물로 보고 서문을 수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송병선의 경우에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 ‘請討凶賊疏’라는 상소를 올리는 등 반대운동을 전개하였고 그해 국권 강탈에 대한 분통으로 자결하는 등의 순국지사가 되었으나 을사늑약 전에는 이렇다 할 반일 활동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조병식은 『공부자성적도』가 간행될 당시 송병선의 서문은 채택하고 『공부자성적도』가 간행되기 전부터 반일 성향을 보인 이남규의 서문은 채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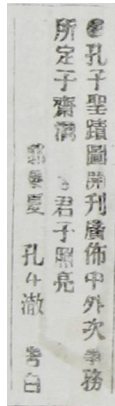
컬리사판의 『공부자성적도』 현존본은 가장 빠른 인본이 1904년에 간행된 인본인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미 『황성신문』 1903년 12월 22일자에 『공부자성적도』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공부자성적도』의 최초 간행을 1903년으로 올려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는 책 판매를 위한 광고라기보다는 책의 간행을 알리고 이를 후원해 달라는 내용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²¹⁾ 『황성신문』 전체에 수록된 책의 광고는 3,722여 건에 달한다. 책 판매를 위한 광고는 ‘書冊賣却廣告’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책의 정가를 기입하고 판매소를 밝히는 등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공부자성적도』의 광고는 이와는 다른 형식이며 책의 가격이나 판매소 또한 밝히고 있지 않아 책의 판매를 위한 광고와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1904년 9월에 조병식이 쓴 서문에도 “장차 판각하여 널리 배포하려고 하니 나에게 그 일을 도와달라고 청하면서 서문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서도 아직 판각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04년 12월에 간행에 참여한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刊記를 통해 볼 때 1904년 12월에서야 『공부자성적도』의 간행이 완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8) 19세기의 성리학자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권회복을 호소하며 을사조약 파기 상소를 올렸으며 을사조약 반대운동을 전개하려 하였으나 경무사 尹喆圭에 의해 강제 귀향조치를 당한 후 그해 12월 30일 자결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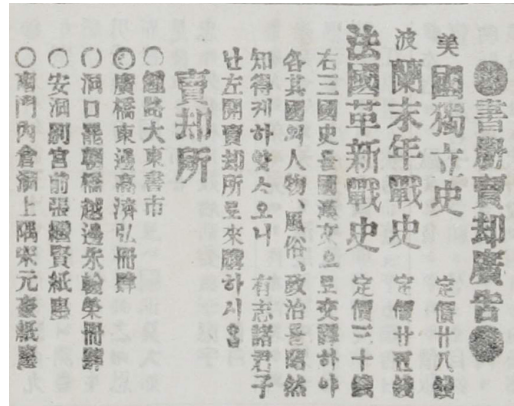
19) 조선말기의 문신으로 여러 관직을 지냈으며, 皇國總商會長이 되어 皇國協會를 조종하고 독립협회를 타도하는 선봉에 있었다. 민중목·이기동과 함께 이른바 5인으로 만민공동회의 규탄·습격을 받기도 하였다. 『공부자성적도』의 서문을 쓸 당시에는 內部大臣을 역임하였다.

20) 1906년에는 최익현이 거사의 동참을 부탁하기도 하였으며 의병의 전투에 협조하였다. 1907년 일본군의 회유에 굴하지 않자 피살되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다.

21) 『황성신문』 1903년 12월 22일. “孔子聖蹟圖開刊廣布中外次事務所定于齋洞 兪君子照亮 鄭?夏 孔在澈 告白”(공부자성적도를 개간하여 중외(전국)로 배포하는 사무소는 재동(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동)이니 모든 군자께서 빛내 주시오. 정?하, 공재철 고백)



공부자성적도 내용(3면 3단)



書冊賣却廣告(4면 3단)

<그림 10> 황성신문에 수록된 『공부자성적도』 내용과 일반적인 책 광고 비교(1903년 12월 22일자)

1904년에 작성된 『공부자성적도』의 통문에는 “교정의 일이 커서 향교 중에서 학문이 넓고 문장이 훌륭한 선비를 선발하여 보내어 교정에 동참하도록 해야 하는데, 비록 향교유생으로 문학의 명망이 없더라도 올라와서 교정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절목의 내용이 있다. 다음해인 1905년 3월의 간기에는 교정인원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1904년에 일단 교정을 완성하지 못한 채로 통문을 수록한 간행본이 먼저 인출되고 이후 교정을 거쳐 1905년 3월에 다시 교정본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黃炫(1855~1910)이 쓴 『梅泉野錄』 권4의 을사년(1905) 조에는 ‘『聖蹟圖』 배포’에 관련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다.

“文宣王의 聖蹟圖를 각도에 배포하였다. 수원 백성 孔在憲은 신묘년(1891)에 청나라에 들어갔는데 寧海府의 孔昭謙의 집에 갔다가 呂聖符가 그린 『宣尼聖蹟圖』 108폭을 구입하여 들여와서는 개인적으로 摹刻하여, 이때 이르러 그 일이 완성되었다. 前局長 李命倫 등과 京鄕의 간사한 백성들은 그것을 奇貨로 여겨 학부대신 李載克과 전 참정 趙秉式에게 뇌물을 주어 이 사실을 임금에게 알리게 했다. 조병식은 通文에 서명을 하여 이 사실을 각 도에 알리고 派員을 정하여 13도에 分送하자 각 군에서는 그것을 聖廟에 봉안하였다. 각 군에서 거두어들인 돈은 400냥, 500냥으로 같지는 않았지만 이때 그들을 孔子派員이라 불러 식자들은 통탄하였다. 얼마 후 관찰사와 수령들이 은밀히 저지하여 그 일은 결국 실질이 없게 되어버렸다.”²²⁾

위의 내용을 통해 당시 이재극과 조병식 등의 고위관료를 뇌물로 매수하여 이들을 통한 공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군에 『공부자성적도』의 强賣가 이루어졌으며, 지식인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부자성적도』의 간행을 뜻밖의 이익을 얻을 기회로 여긴 이명륜 등의 인물에 의해 본래 간행의 목적이 퇴색되었음을 의미한다.

22) 황현, 『역주 매천야록 하』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228-229.

또한 이재극과 조병식을 통해 고종에게 『공부자성적도』의 간행을 알릴 때 진상한 인본으로 판단되는 인본이 있는데 장서각 소장 『공부자성적도』이다. 장서각 소장 『공부자성적도』는 다른 인본과 다른 특이 점이 있는데 꺾리사판을 인쇄한 후 채색을 한 인본이다. 본문의 삽화는 모두 채색이 되어 있으며 채색에 쓰인 안료의 색상과 표현을 보면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근대의 재료를 통해 채색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서각 소장본은 판화 중 101張~102張 판화가 결락되어 있으며, 30張 판화의 경우 畫題와 題贊이 없어 다른 인본과 차이를 보인다. 30장의 판화의 경우 畫題와 題贊 부분이 埋木을 통해 수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장서각 소장본과 같이 원래 없는 내용을 후에 교정을 거치며 삽입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서각 소장본이 현존 인본 중 가장 빠른 인쇄본일 가능성이 있다. 표지의 경우도 다른 현존본의 표지가 연한 붉은색의 비단으로 되어 있고 題籤은 한지에 인쇄되어 있는 반면, 장서각 소장본의 경우는 매화와 대나무의 문양이 있는 진한 붉은색의 비단에 제첩까지도 비단에 인쇄되어 있어 제본의 상태가 가장 우수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장서각 소장본 『공부자성적도』는 가장 빨리 인쇄된 것이며, 진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인본으로 추측된다.²³⁾



<그림 11> 장서각 소장 『공부자성적도』(채색 목판본)와 일반 인쇄본의 비교

23) 장서각은 한말 고종때 규장각, 홍문관, 집옥재, 춘방, 사고 등에 있던 책을 인수관으로 옮기고 장서각을 세우고자 했으나 1910년 한일합병으로 중단되었다가 조선총독부에서 이왕직도서관에서 관장하던 궁궐의 책들을 모아 1911년 '이왕직 장서각'을 설립한 연원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장서각 소장본 『공부자성적도』는 꺾리사에서 간행하여 궁궐에 진상하기 위해 채색본으로 특별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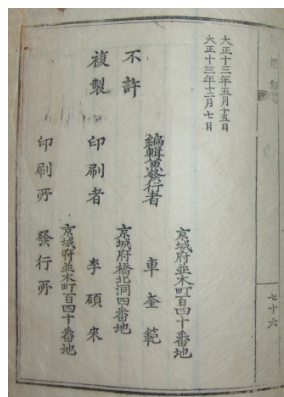
4.2 차규범 간행 『孔夫子聖蹟圖』

궐리사관 『공부자성적도』 외에 1924년에 車奎範이 간행한 동일 서명본이 있는데, 「聖蹟之圖」(標題), 「道統源流圖」, 「聖蹟圖序」, 「聖圖殿記」, 본문판화(105장), 「國朝闕里廟制」, 「釋奠饌品」, 「禮器圖」, 「樂器圖」, 「文廟大成殿從享圖」, 「祭饌品式」,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錄編輯所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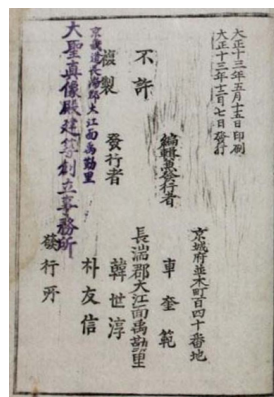
<표 3> 『공부자성적도』의 간행시기

	간행시기	판종	편자	발행소 (발행자)	인쇄소 (인쇄자)	수량	판심	비고
1	1904년	목판본		·	·	1卷2冊	없음	화성 궐리사 책판 소장 (원작: 呂聖符)
2	1905년 (교정본)			·	皇城洞口內 監印所	1卷2冊	없음	
3	1924년	목판본	車奎範	車奎範 韓世淳 朴友信	·	1卷1冊	無魚尾 판심제: 聖蹟圖	
4		목판본	車奎範	車奎範	(李碩來)	1卷1冊	無魚尾 판심제: 聖蹟圖	

차규범의 간행본은 1924년이라는 같은 해에 간행되었지만 서로 다른 판권지를 가지고 있는 인본이 있는데 판권지는 <그림 12>와 같다. 두 판권지의 인쇄와 발행 시기는 각각 대정 13년 5월 15일, 12월 7일로 동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하나는 인쇄자(李碩來)와 인쇄소를 기록하였고 하나는 발행자(韓世淳, 朴友信)와 발행소를 기록하였다. 인쇄자를 기록한 판권지는 판심의 일부가 함께 인쇄되어 있는데 “淵源錄”으로 화구제를 적고 “七十六”으로 장차를 썼다. 1924년에는 『공부자성적도』 뿐만 아니라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錄』이 車奎範에 의해 간행이 되는데, “淵源錄”으로 화구제는 『孔夫子聖蹟圖聖學淵源錄』의 판권지를 그대로 인쇄하여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권지 1



판권지 2

<그림 12> 1924년 간행 『공부자성적도』의 판권지

발행자를 기록한 판권지의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京畿道長湍郡大江面禹勤里/大聖眞像殿建築創立事務所”의 도장이 찍혀있다. 경기도 장단군 대강면 우근리는 현재 경기도 과주시 군내면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성진상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아 DMZ 내에 있었던 장단향교를 재건하기 위한 당시의 건축사무소로 추측된다. 장단향교는 1127년에 현유의 위패를 봉안한 향교로 교동향교, 강화향교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향교 중의 하나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불타 없어졌다. 현재는 과주시의 유림들이 원래 위치보다 남쪽에 장단향교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²⁴⁾

궐리사판과 차규범 간행 『공부자성적도』를 서로 비교하면 궐리사판의 경우는 중국에서 가져온 간행본으로 화첩의 형식을 가진 가로형 판형임에 비하여 차규범 간행본은 판심을 가진 책자형태로 판식을 변형한 판본으로 세로형 판형이다.

	궐리사판	차규범 간행본
尼山致禱		
漢高祀魯		
眞宗祀魯		

<그림 13> 궐리사판과 차규범 간행본 『공부자성적도』의 장면의 비교

24) 2018년 2월 3일 과주향교 유림회관에서 장단향교 창립총회가 있었다.

차규범의 간행본의 경우 궤리사관에 수록된 송병선의 『聖蹟圖序』와 장응등이 쓴 『聖圖殿記』 등을 그대로 수록하였으며, 본문의 판화의 내용과 수록순서도 동일하여 궤리사관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궤리사 판화 중 마지막 ‘漢高祀魯’와 ‘眞宗祀魯’에 해당하는 2판은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데 반하여 차규범 간행본의 경우에는 내용을 완벽하게 수록하고 있다.

차규범의 간행본은 여러 인물과 건물, 자연 등의 판화 표현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궤리사관을 저본으로 하여 새롭게 세로 판형으로 그림을 그리고 이를 판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4.3 孔夫子聖蹟圖 續修五倫行實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은 鄭殷采가 처음으로 편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제목은 동일하나 공자의 일대기 ‘성적도’ 판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인본은 다루지 않았다. ‘성적도’ 판화가 포함되지 않은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은 대부분 신연환자본이 많으며, 성적도 판화는 포함되지 않고 ‘先聖小像’ 판화와 『關里誌』에 수록된 판화를 포함한 경우가 있다.

<표 4>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의 판본

	간행 시기	판종	편자	발행소 (발행자)	인쇄소 (인쇄자)	판심	비고
1	1919년	목판본	정은채	(정은채)	崔興九	無魚尾	서문: 張息根
2		목판본	정은채	(정은채)	崔興九	上下向 4瓣 花紋魚尾	발문: 申冕休 서문: 張息根
3	1920년	목판본	정은채	(정은채)	崔興九	上下向 4瓣 花紋魚尾	서문: 申冕休(필사) 판권지(필사)
4	1924년	목판본	정은채 정성묵	(정성묵)	(俞德五)	上下向 4瓣 花紋魚尾	발문: 申冕休

‘성적도’ 판화가 수록된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은 4종으로 1919년 2종, 1920년과 1924년에 각각 1종씩 간행되었다.

권수에는 궤리사관의 표제인 ‘聖蹟之圖’와 달리 ‘聖蹟圖本’으로 되어 있으며 이어 서·발문과 先聖世系圖가 있다. 본문판화는 ‘先聖小像’을 포함하여 총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이 끝나면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 下篇’으로 孝, 忠 등의 항목에 적합한 인물을 나열하고 성명 아래에는 인적사항을 小字雙行으로 표기하였다. ‘孔夫子聖蹟圖續修淵源文學錄’에 우리나라의 문묘를 東廡와 西廡로 구분하여 배향된 인물 18명을 열거하였다. 마지막으로 ‘孔夫子聖蹟圖續修幼學士林錄’에는 문형 卞季良 외 134명에 대하여 字·號·生年·出身·官職 등 간략한 인적사항을 기록하였다.

정은채는 1919년에 서로 다른 판형의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을 간행하였는데 판화도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나뉜다. 가로형 판화의 경우 궤리사판의 판화와 같이 가로로 긴 형식에 오른쪽에는 따로 칸을 나누어 畫題와 題贊을 隸書體로 적었다. 세로형 판화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칸을 나누고 畫題와 題贊을 楷書로 적었다. 세로형의 설명의 경우 오른쪽 칸 상단을 다시 나누어 畫題는 따로 표기하였다.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에는 장면의 설명에 이어 詩를 함께 수록하였다. 세로형의 경우는 시의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로 ‘○’를 삽입하였다.



<그림 14>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의 가로형과 세로형의 비교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은 각 판본마다 수록내용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정리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세로형의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의 판화는 기본적으로 1919년에 간행된 판화를 인쇄하거나 後刷한 것이고, 기타 내용 구성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은 앞서 간행된 궤리사 판화와 畫題를 달리하고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의 판화 중 ‘五老二龍鈞天樂圖’는 궤리사판의 ‘二龍五老’와 ‘鈞天感聖’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의 판화이며, ‘去魯之圖’와 ‘陳女樂圖’의 2개 판화는 궤리사판에서 ‘因燔去路’의 내용을 분리하여 수록하였다.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은 畫題뿐만 아니라 題贊에서도 궤리사판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修六經圖’의 경우 공자 시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후대 孟子까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부자성적도』의 내용을 바탕으로 후대에 추가하고 편집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의 수록내용 비교

구성 \ 판종	1919년(가로형)	1919년(세로형)	1920년(세로형)	1924년(세로형)	필리사판의 해당제목(張次)
標題	聖蹟圖本	聖蹟圖本	聖蹟圖本	聖蹟圖本	聖蹟之圖
발문	×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跋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跋	×
서문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序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序	필사서문	×	聖蹟圖序
도판	先聖世系圖	先聖世系圖	先聖世系圖	先聖世系圖	×
성적판화1	先聖小像	先聖小像	先聖小像	先聖小像	先聖小像(1)
성적판화2	麟吐玉書圖	麟吐玉書圖	麟吐玉書圖	麟吐玉書圖	麒麟吐玉書(3)
성적판화3	五老二龍鈞天樂圖	五老二龍鈞天樂圖	五老二龍鈞天樂圖	五老二龍鈞天樂圖	二龍五老(4) + 鈞天感聖(5)
성적판화4	戲陳俎豆圖	戲陳俎豆圖	戲陳俎豆圖	戲陳俎豆圖	俎豆禮容(6)
성적판화5	爲委吏圖	爲委吏圖	爲委吏圖	爲委吏圖	職司委吏(8)
성적판화6	昭公饋鯉圖	昭公饋鯉圖	昭公饋鯉圖	昭公饋鯉圖	命名榮賜(10)
성적판화7	爲司職吏圖	爲司職吏圖	爲司職吏圖	爲司職吏圖	職司乘田(9)
성적판화8	學琴師襄圖	學琴師襄圖	學琴師襄圖	學琴師襄圖	學琴師襄(11)
성적판화9	問禮圖	問禮圖	問禮圖	問禮圖	問禮老聃(14)
성적판화10	在齋聞韶圖	在齋聞韶圖	在齋聞韶圖	在齋聞韶圖	太廟問禮(12)
성적판화11	同車圖	同車圖	同車圖	同車圖	醜次同車(60)
성적판화12	爲中都宰圖	爲中都宰圖	爲中都宰圖	爲中都宰圖	化行中都(41)
성적판화13	擊磬于圖	擊磬于圖	擊磬于圖	擊磬于圖	適衛擊磬(58)
성적판화14	去魯之圖	去魯之圖	去魯之圖	去魯之圖	因禡去路(54)
성적판화15	問陳圖	問陳圖	問陳圖	問陳圖	靈公問陳(61)
성적판화16	畏匡圖	畏匡圖	畏匡圖	畏匡圖	匡人解圍(62)
성적판화17	伐木於圖	伐木於圖	伐木於圖	伐木於圖	宋人伐木(65)
성적판화18	陳女樂圖	陳女樂圖	陳女樂圖	陳女樂圖	因禡去路(54)
성적판화19	識桮失圖	識桮失圖	識桮失圖	識桮失圖	陳庭隼集(68)
성적판화20	子路問津圖	子路問津圖	子路問津圖	子路問津圖	子路問津(71)
성적판화21	修六經圖	修六經圖	修六經圖	修六經圖	杏壇禮樂(85)
성적판화22	狩獲麟圖	狩獲麟圖	狩獲麟圖	狩獲麟圖	西狩獲麟(95)
성적판화23	跪受赤虹圖	跪受赤虹圖	跪受赤虹圖	跪受赤虹圖	跪受赤虹(99)
성적판화24	逍遙圖	逍遙圖	逍遙圖	逍遙圖	蒙奠兩楹(100)
성적판화25	聖墓圖	聖墓圖	聖墓圖	聖墓圖	治任別歸(102)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 下篇	孝	孝	×	孝	×
	忠	忠		忠	
	兄弟	×		烈	
	朋友	×		賢媛	
	師生	×		兄弟	
	儒賢	×		朋友	
	×	×		師生	
	×	×		儒賢	
孔夫子聖蹟圖續淵源文學錄	○	○	×	○	×
孔夫子聖蹟圖續修儒學士林錄	○	○	○	×	×
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 敬函	○	×	×	×	×
판권지	○	○	○(필사)	○	×

5. 맺음말

본 연구를 통해 화성 궐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과 현존 인본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후에 간행된 성적도의 판본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다. 궐리사 소장 『공부자성적도』 책판은 1904년에 간행되어 100여 년이 넘도록 궐리사에 보관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목판의 상태와 수리된 흔적 및 마구리 교체 등으로 볼 때 보존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듯하다. 현재 『공부자성적도』 책판이 남아 있는 곳은 화성 궐리사가 유일하기 때문에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다. 따라서 더 좋은 보관 환경을 마련하여 책판의 훼손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궐리사판 『공부자성적도』의 현존본은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1904년의 간행본에는 그 해에 제작된 통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1905년에는 교정된 후쇄본이 간행되었다. 장서각 소장본의 경우는 다른 인본과 비교할 때 제본의 수준이 높고, 본문의 판화 또한 목판인쇄 후 채색되어 있어 왕실로 진상한 인본으로 추측된다. 『공부자성적도』는 궐리사판이 간행된 후에 이를 바탕으로 1924년에 차규범이 판형을 세로형으로 바꾸어 간행하였다.

한편 정은채에 의해 궐리사판과는 다른 계통으로 가로형과 세로형의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이 1919년에 간행되었으며, 이후에는 정은채가 세로형의 판본을 1920년, 1924년에 다시 간행을 한다. 이때 간행된 인본들은 본문의 판화는 25장으로 궐리사판과 비교할 때 간소화 되었다. 『공부자성적도속수오륜행실』의 본문 판화는 1919년에 간행된 것을 後刷하여 각각의 인본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각 간행 시기마다 下篇「孔夫子聖蹟圖續修五倫行實」의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며, 「孔夫子聖蹟圖續淵源文學錄」, 「孔夫子聖蹟圖續修儒學士林錄」 등의 내용의 수록 유무도 간행 시기마다 차이를 보인다.

『공부자성적도』를 비롯한 유교 책판은 단순히 인쇄 수단의 의미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식문화가 형성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지닌 기록유산이다. 이러한 기록유산을 후세에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보존, 연구, 활용 등에 다각도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궐리사판 『공부자성적도』의 중국 판본의 조사와 함께 국내 기타 판본의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후속 논문을 통해 『공부자성적도』의 간행과 계통관계를 연구하여 정리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기주 등. 『공자성적도 - 고관화로 보는 공자의 일생』. 서울: 예문서원, 2003.
- 성균관대학교박물관. 『孔子聖蹟圖 - 그림으로 보는 공자의 일생』. 서울: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 오산시 화성궐리사. 『오산시 화성궐리사 성적도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학술심포지엄 자료집)』. 오산: 화성궐리사, 2019.
- 鄭亨愚, 尹炳泰. 『韓國의 冊板目錄』. 서울: 보경문화사, 1995.
- 鄭亨愚, 尹炳泰. 『韓國冊板目錄總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자료편찬실, 1979.
- 화성궐리사. 『孔夫子聖蹟圖』. 오산: 화성궐리사, 1994.
- 화성궐리사지편찬위원회. 『華城關里祠誌』. 오산: 화성궐리사, 2011.
- 황현. 『역주 매천야록』.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논문]

- 姜在今. “한국에서 궐리사의 의미_화성 궐리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2017.
- 송희경. “공자 교사의 시각화 - 기기도(敍器圖) 연구.” 『동양고전연구』 제62집(2016). 263-290.
-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교육의 변화와 특성.”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13(2014. 3). 33-63.
- 趙善美. “孔子聖蹟圖考.” 『美術資料』 60호(1998). 1-43.
- 趙善美. “공자성적도에 대하여.” 『孔子聖蹟圖 - 그림으로 보는 공자의 일생』. 서울: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146-182.
- 愼民揆. “朝鮮時代 孔子圖像 研究.”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6.

[웹사이트]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idx/index.do>)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
- 한국고전적종합목록 시스템 (<https://www.nl.go.kr/korcis/>)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www.nl.go.kr/newspape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Sunmie. 1998. "Pictures of the Holy Traces of Confucius." *MISULJARYO*, 60: 1-43.
- Cho, Sunmie. 2009. "A study on the Pictures of the Holy Traces of Confucius." *Pictures of the Holy Traces of Confucius-Confucius's life in Pictures* (pp. 146-182).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 Hwang, hyun. 2005. *Translated Maecheon Yarok*. Seoul: Moonji Publishing Co.
- Hwaseong Gwollisa in Osan. 2019. Hwaseong Gwollisa Sungjeokdo Scholarship Symposium. Osan: Hwaseong Gwollisa.
- Hwaseong Gwollisa Shrine. 1994. *Pictures of the Holy Traces of Confucius*. Osan: Hwaseong Gwollisa.
- Jung, Hyung-Woo & Yoon, Byung-Tae. 1979. *The comprehensive bibliography of List of Wooden blocks in Korea*. Se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Jung, Hyung-Woo & Yoon, Byung-Tae. 1995. *The List of Wooden blocks in Korea*. Seoul: Bogyong culture company.
- Kahng, Jae-gum. 2017. *The Meaning of Gwollisa in Korea ; Focused on Gwollisa in Hwaseong*. MA, Graduate School of Confucianism Sungkyunkwan University.
- Kimkijoo et al. 2003. *Pictures of the Holy Traces of Confucius - The life of Confucius in old engraving*. Seoul: Yemoonseone.
- Lee, Namhee. 2014. "The Change and Characteristics of Japkwa(雜科) Education in the Late Chosun Dynasty - Focusing on Japhak Students and Text Books." *The Review of Korea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13: 33-63.
- Shin, Min-gyu. 2016. *A study on the Confucius Images during the Joseon Dynasty*. MA. Graduate School of Myongji University.
- Song, Heekyung. 2016. "The Tilting Vessels: Visualizing Anecdotes from the Life of Confucius." *Journal of the Eastern Classic*, 62: 263-290.
-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2009. *Pictures of the Holy Traces of Confucius-Confucius's life in Pictures*. Seoul: SungKyunKwan University Museum.
-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Hwaseong Gwollisa Histry. 2011. *Hwaseong Gwollisa History*. Osan: Hwaseong Gwollisa.